

헤어진 남매, DNA 검증으로 70년 만에 상봉



2025년 6월, 절강 가흥 남호 가족 상봉 현장.

/ 사진 가흥시공안국남호구분국

최근 헤어진 지 70년 된 두 남매가 다시 상봉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오빠, 드디어 만났네요!” 얼마전 절강성 가흥시공안국 남호구분국 동책파출소에서 녀동생 조모는 집 떠난 지 70년이 된 오빠를 외락 께안으며 감격에 목매인 소리로 말했다. 오빠 리모는 하남성 학벽시로부터 70년 만에 고향땅을 밟게 되었다.

“그 시절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갖 태어난 오빠를 보내야만 했어요.”

상봉의 순간, 녀동생은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의 ‘다섯째오빠’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70년전 가난한 가정형편으로 리모는 태어나자마자 린군의 가정에 입양되었고 후에는 또 그 가정에서 상해의 모 복리원으로 보내졌다가 그곳에서 다시 입양되었다. 이어 리모는 양부모와 함께 하남성에 가 생활하게 되었다. 양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그는 지금은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우연하게 자신이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리모는 가족을 찾으려는 생각이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양부모의 은혜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크지만 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이렇게 시작된 ‘뿌리 찾기’가 무려 10년간 이어지는 동안 리모는 친부모의 안부만이라도 알고 싶었다.

“아버지는 늘 가족을 찾아 헤맸어요. 아버지 생전에 그 소원을 이루도록 돕고 싶었어요.” 2024년 7월,

리모의 큰딸은 틱톡 플랫폼에서 절강성 소흥시 승주공안 ‘화합’ 가족 찾기 작업실의 경찰 상조양이 타인을 도와 가족 찾기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보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는 아버지의 정황을 상대방에 전달하며 공안부문에 아버지의 혈액 샘플을 제출했다.

올해 6월초,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공안부문으로부터 DNA 비교 대조 결과 아버지의 친지들이 가흥에 있다는 것이었다. 딸이 이 소식을 아버지에게 알리자 리모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쏟았다.

남호공원 형사정찰대대 경찰 하가연은 “상조양은 전에도 우리와 협력한 적이 있는데 대조작업을 통해 리모의 DNA가 가흥지역과 근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연락해왔다.”고 말했다. 경찰 하가연에 따르면 최종 리모는 동책관할구역이 원호적인 조모와 혈액 샘플 대조에 성공했고 즉시 상조양에게 통지하여 이번 가족 상봉 장면이 펼쳐지게 된 것이었다.

70년이라는 세월에서 서로 다른 방언도 혈육의 정을 가리지 못했다. 조모는 오빠의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오빠가 한명 더 있다고 말하고는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형제자매중에서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요.”라고 하면서 “공안경찰들 덕분에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라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두 남매는 서로의 손을 잡고 그동안의 그리움을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 중국신문넷

우리 나라 헌혈을 인구 천명당 11.4 수준

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의료응급사 부사장 곽광명은 “우리 나라 헌혈률이 인구 1,000명당 11.4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소식공개회에서 곽광명은 “헌혈법이 반포 실시된 이래 우리 나라에서는 무상헌혈 제도가 전면적으로 건립되고 혈액관리 법체계가 날로 보완되어 무상헌혈이 질적인 비약을 실현했다.”고 소개했다.

소개에 따르면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 혈액 안전 공급을 보장했다. 우선, 무상헌혈 선전동원을 강화하고 국가철도그룹과 협력해 전국 3,000여개 철도역 터미널에 무상헌혈 선전 포스터를 붙이고 4,200여대 고속열차의 26만개 스크린에서 관련 영상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 또한 단체로 무상헌혈에 참여함으로써 숭신수범해 사회의 량호한 기풍을 선도하도록

당정기관, 대학교, 기업, 사업단위들을 격려했다.

그외에도 전국 혈액관리정보 시스템에 의지해 혈액 채집, 공급, 검사, 재고 등 정보의 실시간 동태관리를 실현하고 혈액 재고를 날마다 감시하며 전국 혈액 런던 응급 보장능력을 건전히 하고 지역간 혈액 배치를 정확하게 하여 중점지역, 중요시점의 혈액 공급을 보장했다. 2024년 전국적으로 투게 361만 3,000단위의 혈액을 배치했는데 그중 성급지역간에 배치한 혈액이 58만 3,000단위로 동기 대비 35.1% 증가했다. 그리고 혈액 안전 최저선을 다지고 혈액검사 항목을 확충하며 검측기술 수준을 제고하여 중점 전염병의 수혈 경로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현재 우리 나라 혈액 안전 총제적 수준은 세계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 신화사

조선족 로당원들 ‘입당선서’ 활동 개최



선서문을 낭독하는 장면

24일, 대련시조선족로인협회 감정자분회는 대련시조선족문화예술관에서 ‘입당선서’ 활동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의 9명 당원이 63명 회원들 앞에서 당기를 향해 장엄히 선서했다.

지난해 3월에 임기 교체를 마친 감정자분회는 하순길(75세) 회장의 인솔하에 꾸준히 시사학을 조직하여 로인들의 관념을 승격시키고 다양한 문예활동, 야외 나들이, 외지 견학 등 활동을 진행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로당원 박도근(83세)은 각종 문제활동 때마다 행사 준비, 심판, 후근 사업을 빈틈없이 맡아했고 로당원 조영학(84세)은 협회의 음향설비 관리

를 책임지고 남보다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회원들의 한결같은 칭찬을 받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젊은 시절 산전수전을 다 겪은 로당원들은 하순길 회장의 인솔 아래 힘있고 격양된 목소리로 선서문을 낭독하면서 앞으로 사명감을 갖고 초심을 명기하고 분발노력하여 더욱 큰 성과를 따내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총회 지도자 지명하는 총회 당지부를 대표하여 모든 당원들에게 건당기념일 축하를 전했다.

/ 리삼민특약기자



연길, 환경미화원들에게 1,300 개 자외선차단 모자 전달

최근, 연변 중의자선원조중심과 애심기업 애심인사들은 연길시환경위생작업유한회사를 찾아 애심기부 활동을 펼쳤다.

환경미화원들의 더위 피해를 덜어주고 직업적 열사병을 예방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찜통같은 더위 속에서도 환경정결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에게 1,300개의 자외선차단용 애심모자를 전달했다.

“무더운 날 수고 많으십니다. 모두들 적절히 휴식하면서 더위에 대비하세요.” 행사에서 애심인사들은 우산 모양으로 된 자외선차단용 모자를 나눠주며 환경미화원들에게 따뜻한 당부를 건넸다.

환경미화원 리신재는 “매일 해빛아래서 일하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이 우산모자를 쓰니 정말 시원하네요. 마음도 따뜻해지고 일할 힘도 나네요.”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연변중의자선원조중심당지부 서기 류건강은 “환경미화원들은 도시환경을 지키는 수호자들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고생하며 일하는 그들에게 사회의 관심과 사랑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도 환경미화원들의 로고를 존중하고 함께 도시환경을 아끼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라고 밝혔다.

/ 리전기자



환경미화원들에게 애심모자를 씌워주고 있는 애심인사들

룡정시공증처, 공증서 신속 발급해 백혈병 환자 치료 조력



고객에게 공증서류 수속을 해주고 있는 조광수 부주임

최근, 교씨 성의 한 여성이 룡정시공증처를 찾아 초조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도움을 청했다.

사업일군이 알아보니 그녀의 조카 손녀가 광주에서 백혈병을 치료하고 있는데 그녀의 년로한 올케(환자의 할머니)가 돈을 인출할 때 여러차례나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의료보험카드 계좌가 잠겨버렸던

것이다. 후속 치료에 의료보험카드의 돈을 급히 인출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날 교씨 여성이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잠금을 해제하려 하자 은행측은 반드시 위탁공증을 해야만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6월 23일에 의료보험카드를 후속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시간이 촉박하여 조금도 지체해서는

안되었다.

룡정시공증처 조광수 부주임은 이 긴급 상황을 료해한 후 가장 빠른 시간내에 교씨 여성에게 ‘목색통로’를 열어주었다. 조광수는 대증의 일에는 작은 일이 없다’는 봉사 리념하에 자료를 급급히 접수하는 한편 교씨 여성의 실제 수요에 따라 공증문서를 재빨리 작성했다. 아이의 병세를 고려하여 조광수는 일반적인 업무 절차를 타파하고 기타 대증들을 조율하여 사전에 원격영상 공증 봉사를 배치했는바 접수에서 공증서 출력까지의 모든 수속을 완료하는 데 2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공증 비용을 감면해주었다.

공증서를 받아든 교씨 여성은 “감사합니다! 일처리 효율도 높고 봉사도 잘해준 덕에 저희 가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라며 연신 감사를 표했다.

이번에 교씨 여성의 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능률적으로 해결해준 것은 룡정시공증처가 ‘대증을 위해 실제적인 일 하기’를 실천한 생동한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룡정시공증처 김련희 주임은 룡정시공증처는 앞으로도 편민봉사 조치

를 지속적으로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째, ‘목색통로’를 개통하고 ‘당원시범일터’를 설립하여 거동이 불편한 로인, 환자, 수형자 등 특수군체에 방문봉사를 제공하고 의료구급, 중대 질병 치료 등 특수 상황과 관련된 공증 수요에 대해서는 ‘특수사안 특수처리, 긴급사안 긴급처리’를 실시한다. 둘째, ‘인터넷+공증’ 봉사 모식을 한층 더 보급하고 원격영상 공증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데이터를 더욱 많이 활용하고 대증의 출현 부담을 경감시킨다. 셋째, 조건에 부합되는 대증에게 주동적으로 법률원조를 제공하고 공증 비용을 감면하여 대증의 사무 부담을 확실하게 경감시킨다.

앞으로 룡정시공증처는 또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혁신 조치를 깊이있게 발굴하여 인민대증의 근심을 덜어주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실제에 도달하며 량질, 고효률의 봉사로 대증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고 난제를 해결하며 공증 봉사를 대증의 마음에 들도록 하고 대증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고 걱정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튼튼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게 된다.

/ 유경봉기자



7.1절 맞아 곤난로당원에게 사랑의 손길을



로당원 위문 장면

당장전 104돐을 맞아 지난 20일 연변대학 최고경영자과정총동문회와 연변혁신경영자애심협회당지부의 당원들은 연길시 신흥가두 민부사회구역의 곤난로당원 김영식로인 가정을 찾아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는 연변대학 최고경영자과정총동문회와 연변혁신경영자애심협회당지부 당원들이 ‘중양 8항 규정 정신 학습으로 사회구역 련정건설의 초석을 튼튼히 다지자’는 주제로 진행한 당원 활동이다.

장기 환자로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김영식로인은 위문금과 위문품을 받고 크게 감동되어 “당의 따사로운 보살핌과 주변 애심인사들의 사심없

는 도움으로 생활의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연변대학 최고경영자과정총동문회와 연변혁신경영자애심협회당지부 회원들은 김영식로인의 병세를 자세히 료해하고 나서 병치료나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 오라면서 힘내라고 격려했다.

연변대학 최고경영자과정총동문회 해당 책임자는 “해마다 당장전일을 맞아 연변혁신경영자애심협회당지부와 손잡고 곤난로당원 위문활동을 전개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이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리전기자

